

한국·일본·중국·대만·우즈베키스탄 국제 학술대회

Korea·Japan·China·Taiwan·Uzbekistan
International Conference

동아시아역사 속의 갈등과共生

▶ 일시: 2010년 3월 1일(월)-3월 2일(화) 09:00-18:00

▶ 장소: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604호, 31609호

▶ 주최: - 成均館大學校 史學科 BK21事業團
- 成均館大學校 東아시아歷史研究所
- 早稻田大學 아시아研究機構
- 早稻田大學 「帝國の遺産と東アジア共同體」
研究プロジェクトチーム
(科學研究費; 基盤研究B; 18330033)

번역문(국문)	289
3. 우즈베키스탄 한국학 : 역사와 장래	299
정 율리아(우즈베키스탄 국립세계언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과장)	
번역문(중문)	307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 역사와 장래

정 율리아 (우즈베키스탄 세계어언대학 한국어학부 과장)

한국학이란 무엇입니까? 한국학은 러시아어로 '고려에외테니에'라고 "고려" 어근을 포함하는 "고려사람", "고려말" 등을 다루는 과학의 한 분야이다. 개념을 더 넓히면 한국학은 과학적 학습적인 과목을 비롯하여 한국, 한국인과 타국에서 거주하는 디아스포라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러시아의 한국학은 약 백년 역사를 넘고 위대한 학자들과 연구방법으로 유명하다. 한국학은 소련시대 때는 러시아 중심도시들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한국학은 걸음마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한류로 인해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고려인들의 생활양상과 한국과의 관계 등이 한국에서도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학자 김 게르만에 [1] 의하면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역사는 다음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1937-1953 강제 이주와 스탈린의 죽음. 본 단계는 사멸 단계다.
2. 1953-1970 고려인의 연구의 시작이다.
3. 1970-1985 사회적 마비 시대.
4. 1985-1991 고르바초프 시대 역사 연구 회복.
5. 1992- 현재 중앙아시아 국제적인 관심 증대.

단계별로 살펴 봅시다.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은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는 못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 역사, 사회학과 민족학 등. 필란드 고송무 [2] 학자 책의 1937년의 이주에 대해 명단이 적혀있다. 1937년 12월 20일 «프라브다» 신문에 실린 제카 베카페(베)와 소비에트 정부가 모든 이주를 처리한 극동주 철도원들에게 공식적인 감사장을 주었다. 18만 명을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일은 장주의 특사이었다. 한 달 동안 화물열차에 추위와 식량 빈곤에 시달려 우즈베키스탄에 1937년 11월 8일에 153,761 가족이 거주하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 학자에 의하면 [3]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수가 연별로 다음과 같다:

표1.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인구 수>

년도	인구 수 천 명	구 중		%		노베트 공화국 고려인 수 천 명
		도시	시골	도시	시골	
1939	73	11	62	15	85	182
1959	138	44	94	32	68	314
1970	148	85	63	57	43	357
1979	163	117	46	72	28	389
1989	183.1	146	37	80	20	439

사회적 연구는 1960년부터 시작되었다. 자를가시노바[4]와 이오노바 [5] 학자들이 고려인과 그들의 생활 문화주제를 연구했다. 1956년에 사범대학교에 한국어와 한국문학학과가 설립되었다. 80년대부터 한국학의 연구가 좀 더 활발해졌다. 90년대 이후로부터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때부터 한국어교육이 적극적인 시작을 보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민주 국가 독립의 18 년이며 자유와 진리의 민주 국가 설립을 목표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개혁을 위해 전력을 하고 있다. 1997년 8월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회의에서 교육은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인 것을 선언했다. 1997년 8월 29일에 국회 IX 세션에서 우즈베키스탄 교육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교육 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와 교육의 개발 전략을 국가 프로그램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교육 개혁의 또 다른 영역을 강조하고 싶다 - 소형 민족들이 자신의 언어로 교육을 위해 조직과 조건을 생성하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민족들이(136개)더불어 사는 나라다. 사실 중고등 학교 교육에만 7개 언어로 학습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약 20 개의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간의 협력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와 더불어 한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표2. <우즈베키스탄의 언어별로 고려인 수>

년도	인구 수 천 명	그 중 모국어라고 친다				아주 잘 안다	
		한국어	%	러시아어와 등 언어	%	한국어	러시아어와 등 언어
1959	142	116	82	26	18	-	X
1970	151	111	74	40	26	-	X
1979	163	101	62	52	38	-	94
1989	183	102	56	81	44	-	98

표2에 의하면 90년도까지 열 명중에서 아홉 명의 모어는 러시아어고, 한국어는 전혀 모

문다는 통계결과이다. 그러나 90년도 후부터 우즈베키스탄 젊은 층의 언어 상황이 달라졌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협력관계가 진밀해져가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 수가 날로 늘고 있다. 그러나 표준적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의 내용과 질차가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고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우즈베키스탄 내개 대학교들에서 한국어학과가 설립됐고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학습하기 시작했다. 니자미 사범대학교는 한국어 교사기관으로 앞장섰다. 동방대학교, 세계언어 대학교와 사마르칸트 대학교 졸업생들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대부분은 회사에 취직을 원한다. KOICA 봉사단원들과 파견교수들이 우즈베키스탄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타민족언어 실력 부족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학 지식을 전달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김 케르만학자에

[1]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려인 민족
2. 부모의 권위
3. 한국에 갈 수 있는 것
4. 좋은 회사의 취직
5.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기회
6. 국제결혼

최근에는 신입생중 대부분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미리 공부한 학생수가 더 많다. 타슈켄트 한국교육원과 130개 스콜라에서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타슈켄트 세종한글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다.

표3. <우즈베키스탄 국립세계언어대학교 년도별 학생 수>

대학명	개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우즈베키스탄 국립세계언어대학교	2005	34	150	224	254	320

우즈베키스탄 국립세계언어대학교는 2005년에 한국어학과가 설립됐고 학년마다 학생 수가 증가 (표3) 하고 있다. 다섯명 교수 중 두명이 박사 학위 교수다. 그러나 젊은 교수층은 학문적 연구에 몰두하지 않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바로 마음을 바꿀 예정이다. 한국에 가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에 돌아온 학생수는 매우 적다. 그 중에 통번역가로 직무하는 졸업생들이 대부분이다. 현지언어교수 문제해결에 힘을 다 모아야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원하는 한국어를 전공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학습내용과 주제다. 우리 우즈베키스탄 국립 세계언어 대학교에서는 1, 2, 3, 4 학기 한국어 전공반 중급1, 2 ; 고급1 (회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발음, 어휘) 등의 교과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문, 한국문학론, 음운론, 형태론, 문장론 등 언어학적 과목은 강화 할 수 없다. 그것은 전문가교수, 외국인을 위한 교재, 학습자 배경에 달려있다.

한국어 부전공반 3, 4, 5, 6, 7, 8 학기 초급1, 2, 중급1, 2 (회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발음, 어휘) 가르치고 있다.

한국의 문화, 역사, 경제, 정치 분야는 학습자 배경과 언어 학습 경험에 위해 외국어로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용하는 교재와 가르치는 교사도 각기 다르다.

우리 우즈베키스탄 국립 세계언어 대학교 한국어학과 시설은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 사관, KOICA, 국제교류재단 등의 많은 지원으로 설립 되었다. 그 중 한국의 문학과 문화, 역사 등 교재와 책들이 학과 도서관에 자리 잡고 있다. 학생들이 전자정보센터에서 많은 지식을 모을 수 있다. 20대 LCD화면 컴퓨터는 인터넷으로 연결 되어있다.

오늘 날 타슈켄트는 중앙아시아의 주요한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많은 고등교육기관과 연구시설, 박물관이 있고 우수한 오페라 발레 극장도 다수 있다.

제 2의 도시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의 하나로, 우즈베키스탄 중동부에 있다. 사마르칸트는 티무르 왕조의 문화적 업적으로 알려져 있다. 티무르는 정복의 길에 나서는 한편 문화와 예술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올그베르크는 스스로 교육자가 되어 학문을 고양시키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위정자라기보다는 위대한 학자이었다. 천문학자로서는 세계 고전과 학자로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 페르시아 등지의 저명한 천문학자들이 천문에 모여들어 천측표를 제작했다. 이것은 17 세기 중반에 유럽에 전해져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마르칸트는 세계 문화의 정수를 한데 모아 꽃피운 도시로 유명하게 되었다. 아직도 사회주의체제가 남아 있어 토지와 물에 대한 국유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가격, 생산량 및 분배, 수출입 등의 결정을 정부가 통제한다. 농림업은 국내총생산 (LGP)의 약 22.5%를 차지하고 있고, 대륙성 기후로 인하여 국토의 1/10을 개간하여 대부분 관개수로에 의한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재배면적은 422헥타르이며 이중 41%가 목화, 32%가 곡물, 11%가 과일, 4%가 채소, 12%가 기타 작물의 경작에 이용된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투자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승용차들이 Nexia, Damas, Matiz, Lacetti 생산됐고 텔레비전과 세탁기 Samsung, LG 우즈베키스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 많은 한국식당과 가게에서 한국의 맛을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사는 나라다.

우즈베크 (71.4%), 러시아 (6.3%), 타지크(4.7%), 카자흐(3.9%), 유태(0.3%),

인구 및 보건 관련 지표

연령별 인구 비율 (2003년 기준)

0-14세 - 34.7% (남자:4,594,721, 여자:4,431,653)

15-64세 - 0.5%(남자:7,781,739 여자:7,945,641)

65세 이상 - 4.7% (남자 :497,692 여자:730,201)

수도 : 타슈켄트 (인구 약 250만명)

언어 : 우즈베크어 (공용어), 러시아어 (통용)

종교

이슬람교 88%(수니파 70%), 러시아 정교 9%,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헌법상 정치와 종교 분리, 신앙은 자유이지만 선교 활동은 금지다.

표4.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령인 수 현황 조사표 (2007년 1월)>

	합계 고령인 인구 수			고령인 인구 수						이민 증가			고령인구 합계			
	합계	도시	시골	합계		도시		시골		합계	도시	시골				
				출생	사망	출생	사망	출생	사망							
고령인	150094	123007	27087	1392	1452	'60	1183	1106	77	209	346	-137	-2354	-1784	-570	147 680

표5.<우즈베키스탄 지역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령인 수 현황 조사표 (2007년 1월)>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	안지관	부하라	자카트카타리아	나보이	나만간	사말칸드	수르한다리아	스트라리아	타슈켄트주	페르카나	호레즈프	타슈켄트시	
고령인	121300	5737	2408	1262	2151	1154	1016	2398	5009	672	5726	37912	5018	3164	47673

고령 사람의 민족적 의식 부흥은 그들의 지식과 유산회복에 달려 있다.

최근에 젊은 층에서 고령 사람의 풍습과 습관을 잃어가고 있다. 정 미하일연구자에 [6] 의하면 20% 피실험자가 고령 사람의 풍습과 습관을 모른다'고 답했다. 고려문화협회와 중앙아시아 한국학협회가 고령 사람의 풍습과 습관 부흥과 획득에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고려 말은 약 십년만 더 지나가면 완전히 소멸 될 수 있다 [7]. 고려 말은 한국어의 역사, 문화 연구의 원시이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학자들이 고려말을 연구하는 바가 있다:

King, J.R.P. 1987, An Introduction to Soviet Korean, <어학연구> 23-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King, J.R.P. 1991, Russian Sources on Korean Dialects, Ph.D. dissertations, Harvard University;

King, J.R.P. 2006, Korean dialects in the former USSR, <망언학>, 3 한국방언학회;

박넬리 1991, On Korean dialects in the USSR, <이중언어학> 8, 한국어중언어학회;

박넬리 1997, Besonderheiten der Kasusformen des Yukchin dialetes des Korianisch en in Kasaxstan, <국어학논집> 3, 태학사.

고송부 1987, Korean in Soviet Central Asia, Studia Orientalia 61, Helsinki.

권재일 2007,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격조사와 격조사 생략과 축약, <중앙아시아 한국학회>.

김주원 2007, 고려 말 어두 비자음의 음성 특징, <중앙아시아 한국학회>.

카자흐스탄 시인 스타니스라브 이가 '한국 이름은 없어지고 짧은 성만 남아 있다. 그러나 한국 음식 매운 맛은 입천장을 웃돌고 있다, 우리 역사의 질문에는 할아버지가 예전처럼 깊은 한숨만 쉬고 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와는 집에서 고려말을 썼고, 밖에 나가면 이웃 아이들이 '포리이스' 별명을 붙이고 공식적으로는 고려 사람의 성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누구이며, 왜 눈과 피부가 이웃과 다른가'는 질문에 아버지가 고르바초프 시대 때에 조심스럽게 답을 하셨다. 내 증조부가 19세기 60년대 우수리스크 지역으로 왔고, 그 당시에는 러시아 교회에서 등록을 받고, 이름도 받았다고 했다. 이렇게 고려 사람의 이름은 뽀뜨르, 이바느, 마크시드 됐다. 땅뿐만 아니라 말도 받을 수 있었다. 부지런히 일만 하면 돈을 모아 해안 연해주로 이사 갈 수도 있었다. 내 할아버지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업이 잘 돼 이층벽돌집에서 일층 가게에서는 음료와 비누, 생선 등을 팔았다고' 할머니가 이야기 하곤했다. 그 다음에는 1937년이 검은 구름처럼 밀려온 고난과 고통이 고려 사람을 감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오지로 강제 이주 되었다. 그러나 온돌생활과 풀을 먹는 관습을 잘 알기 때문에 고려 사람들은 살아 남았다. "고려 가족에는 보통 대가족이었고, 아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굶주림에 시달려 풀과 나무 뿌리를 말려 써서 50% 밀가루 섞어 빵과 개고기 기아를 이겨냈다'고 자를가시노바 [8] 카자흐학자가 역설했다.

그러나 지식 있는 고려인들 마음은 또 다른 문제에 시달렸다. 강제 이주 전 블라디보스톡 한국 사범대 도서관책들이 크즐-오르다에 카자흐 작은 도시에서 아궁이에 태워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천오백권 특이한 책들이 카자흐스탄 국립 도서관에 온신처를 얻었다 [9]. 지금도 그 책들이 연구자와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저는 어머니가 (84세) 갖고 계서던 한글로 써넣은 노래노트를 받았다. 옛날 고려인들의 노래 속에 그들의 삶과 역사가 담겨 있다. 어머니의 학력은 한글학교 오학년이다. 그 노래들은 문학작품의 소재나 주제가 될 수 있다.

결론

국제 사회의 긴밀한 관계로 세계가 가까워졌다. 한국의 중소기업 파견과 한류로 인해 중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이 90년대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대중화된 한국어가 관심의 언어가 됐고 고려인의 민족적 자긍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더욱 충실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은 뿌리를 굳게 내릴 것이며 언어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참고 문헌

1. 김 Г.Н. Кореведение в СНГ: 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Докл.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СНГ: проблемы и решения». -Т., 2006.-с.21.
김 게르만 (2006). 시아에스의 한국어학: 과거, 현재와 미래. How to promote Korean studies in the CIS: Problems and Solutions. Tashkent.
2. Ко Сон Му. Корей цы в Совет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 англ.яз.). Хельсинки, Финское восточное общество, 1987.
고충무 (1987).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피란드 동방학회>.
3. Ким Мен Гир.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Узбекистана// В сб.: Ким Брутт. Корей цы Узбекистана.-Т.1997.-с.136.
김 먼길 (1997).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의 특징.
4. Джарылгасинова Р.Ш. Культура и быт корейцев совхоза «Раушан» Кунградского района Кара-Калпакской АССР// Краткие сообщения Института этнографии. 1960, том XXXV.
차를가시노바 (1960). 카라칼파크 자치 공화국 군그라드구 <라우산> 소비호즈의 고려인 문화와 가풍. 민족학대학교, XXXV권.
5. Ионова Ю.В. У корейцев Средней Азии// Краткие сообщения Института этнографии. 1963, вып. 38.
야오노바 (1963).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민족학대학교, 38권.
6. Тен М. Проблема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Узбекистана//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n Diaspora in Retro-Perspective July 13-15, 2007, Алматы

7. 정 미하이르 (2007). 우베키스탄 고려청소년의 민족적 동일성 문제점.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n Diaspora in Retro-Perspective. Алматы.
8. Ли Б.С. Современные тенденции и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Узбекистана//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странах СНГ: проблемы и решения.-Т., 2006. с.438.
이 브로니스라브 (2006). 우베키스탄 대학교들의 한국어학 발전의 경향과 전략. How to promote Korean studies in the CIS: Problems and Solutions. Tashkent.
9. Югай И.С.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Западно-Казахст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становления в условиях культурной революции//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n Diaspora in Retro-Perspective July 13-15, 2007, Алматы.
10. 유가이 (2007). 카자흐스탄서지역 고려인 디아스포라.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n Diaspora in Retro-Perspective. Алматы.
11. Анањева С.В. Переосмысление трагических страниц истории в корейской роман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а//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n Diaspora in Retro-Perspective July 13-15, 2007, Алматы.
아나네바 (2007). 카자흐스탄 소설에 나타난 고려인민족생고 재진판.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n Diaspora in Retro-Perspective. Алматы.